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박 은 경)

의안 번호	2947
----------	------

발의년월일 : 2017. 1. .

발 의 자 : 박 은 경 외 19명

☐ 주문사항

- 붙임 '결의안'과 같음.

☐ 제안이유

-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4·16 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2016년 9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
- 아직도 미수습자가 있고 유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해 줄 4·16 세월호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절실함
- 유족의 슬픔과 국민의 염원을 승화하여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4·16 세월호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4·16 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2016년 9월 30일까지 활동을 종료하였으나 아직도 미수습자가 남아 있고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인양은 지연되고 있다.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적 원인을 규명해 줄 4·16 세월호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절실한 실정이다.

탄핵정국으로 불신이 팽배하고 기본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온 국민의 염원을 승화하여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첫째,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조속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세월호 선체인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4·16 세월호 참사조사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